

고창군 ‘3대 지원금’ 추석 전 지급

군민활력지원금 1인 20만원·소비쿠폰 10만원에 농민공익수당까지
전통시장 구매 최대 2만원 환급·셔틀버스 운행 등 소비 활성화 지원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리하고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 ‘3·8장날’에만 운영하던 고창전통시장 셔틀버스를 10월1~5일 추석 연휴 전반기 동안 확대 운영한다.
군민과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같은 기간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추석 전까지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군민활력지원금은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며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돌아간다.
두 지원금 모두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 명절

장보기비용 절감과 지역 내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와 함께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민공익수당도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민활력지원금, 소비쿠폰, 농민공익수당이 모두 추석 전에 지급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통시장 행사와 군민 지원금이 어우러져 이번 추석이 군민 모두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한옥호텔 ‘명지각’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

1956년 건축된 2022년 증축
전통 건축 현대적 활용 사례 주목

남원의 명물 한옥호텔 ‘명지각’이 ‘2025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1956년 처음 지어진 명지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9억원 등 94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리모델링과 증축 등이 이뤄졌다.
연면적 870㎡, 지상 1층, 12동 11객실 규모의 명지각은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30일 재개관해 운영 중이다.
자연 친화적 환경이 장점인 이곳은 목조건축 분야의 우수성과 전통 건축의 현대적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명지각 건물 외부에 최우수상 수상 동판을 부착해 대외적으로 수상을 홍보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국가사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남원 한옥호텔 ‘명지각’ 정문 전경.

남원시 관계자는 “명지각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전통문화와 현대 건축 기술이 어우러진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인

근 전통 한옥과 연계해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전통문화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초가을 선운산 꽃무릇 속 ‘달달한 멜론’

고창군-멜론연합회 20~21일 멜론 페스타...게임·버스킹 공연 등

고창 선운산 꽃무릇과 함께하는 ‘2025년 고창 멜론 페스타’가 20~21일 선운산도립공원 잔디밭 광장에서 열린다.
고창군과 고창멜론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고창 멜론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객들이 고품질의 고창 멜론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연령

층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멜론 관련 미니 게임, 버스킹 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고창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같이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고창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 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고창 멜론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최근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창 멜론과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들의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선운산 꽃무릇과 어우러진 이번 멜론 페스타는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특산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다”라며 “고창 멜론의 달콤함과 풍성한 가을 자연 풍경을 선운산에서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축사 악취 개선’ 19억원 확보

공모사업 선정...농가 등 30개소에 액비저장조 등 지원



남원 축사 시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서 관심이 큰 사업으로 2026년 공모사업에 전국 51개 시·군에서 신청하여 남원시를 포함한 20개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 2021년부터 올해인 2025년까지 60억여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축산농가 28개소와 퇴·액비 유통업체 2개소 등 총 30개소에 송풍식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운반차량 등의 지원으로 악취 저감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악취 민원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뇨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효율을 높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전북 첫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NH농협과 AI 자동화시스템 공동 개발...수납처리 ‘일주일→하루’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인공지능 활용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읍시는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 함께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기고지서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해 담당 공무원이 연간 2000여 건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은 고지서를 스캔한 뒤 문자와 숫자로 변환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주일 이상 걸리던 수납처리 기간을 하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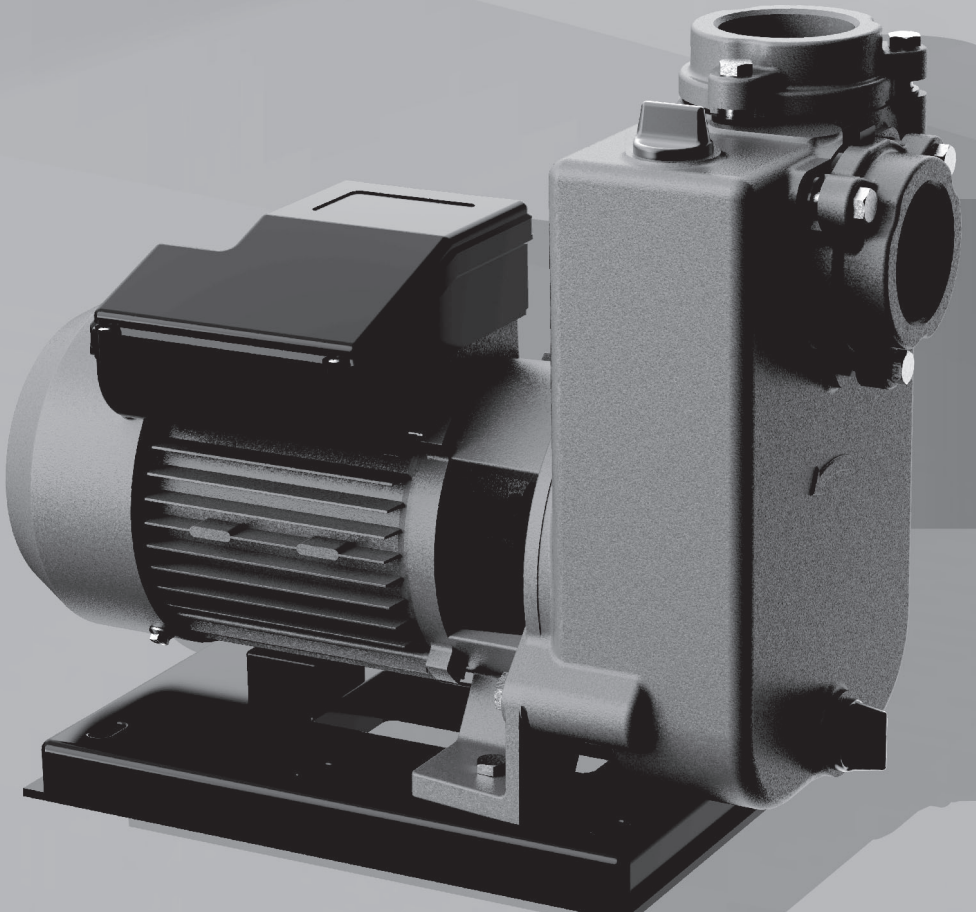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단축했다.
핵심 기술은 AI 기술인 지능형 문서처리(IDP·Intelligence Documents Processing)다. 정형 문서뿐만 아니라 비정형 문서도 자동 분류하고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도 딥러닝을 통해 수납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부터 수천 건의 고지서를 이미지화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산림 내 불법 채취·취사 집중 단속

다음달까지...적발시 과태료 등

정읍시가 임산물 수확기와 추석 성묘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에 집중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묘지 주변 불법 벌채와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